

# 근대조형예술에 있어서 분해구성 조직방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Organizing Strategy of De-composition works in Modern Plastic Arts

-리트벨트 초기작품을 중심으로-

- Focused on Gerrit Rietveld's early works -

이 광 인\*

Lee, Kwang-I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organizing strategy of de-composition works in modern plastic arts. Through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De Stijl painters and Rietveld's early works and analyzing the composition and disposition type of elements such as point, line, plane, color in the selected works, we can draw some conclusions.

First, Rietveld pursues the dissolution of traditional volume and the de-composition of elements as Mondrian does through crossing-connection of three listels with quadrangular section. Second, Rietveld reorganized de-composition elements with detached lines and color planes. Third, Rietveld experimented possibility of new plastic space through displacing elements, opening space, making anti-gravity space.

키워드 : 분해구성, 리트벨트, 더 스테일

keywords : de-composition, Rietveld, De Stijl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의의

더 스테일 화가들은 근대조형예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여 주었다. 전통적인 원근법과 양감법에 의한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형태를 단편화시키고 다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화법으로 예술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것이다. 이들의 표현방식은 모든 형태를 분해시키고 재구성함에 있어서 입체성을 소멸시키고 평면성을 부각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분해적 표현방식은 가구·건축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에 가구 및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작품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게리트 리트벨트의 작품을 통해서 분해구성 조직방식의 기초를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자들 역시 리트벨트의 1917년~1924년 분해구성방식의 작품에 큰 관심을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더 스테일(De Stijl) 화가들의 분해적 표현방식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둘째, 2차원 회화에서 사용된 표현방식이 3차원 가구, 건축분야로 확장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트벨트의 분해구성 작품의 조직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근대조형예술의 기본 원리로서의 분해구성 조직방식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더 스테일 화가의 분해적 화면구성 전개과정을 고찰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2) 리트벨트작품의 분해구성 조직방식을 분석하여 3) 평면적으로 분해시킨 구성요소들의 3차원 공간으로의 재조직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는 리트벨트의 조형체계연구 중 건축 구축적 기초를 마련한 분해구성 조직방식을 밝히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며, 1920년대 초반 회화와 조각과 건축이 함께 추구하였던 아방가르드 예술에 관한 이해, 더 나아가 근대 건축의 기초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1.2 연구 범위

연구의 범위는 리트벨트가 분해구성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험하였던 시기인 1917년~1924년으로 한정한다. 분석대상은 건축구축적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가구작품들과 건축작품으로 한다. 선정된 가구작품은 셸링 하이체어1(Shelling High Chair1, 1917), 셸링 하이체어2(Shelling High Chair 2, 1918), 엔드테이블(End Table, 1923), 베를린 체어(Berlin Chair, 1923) 및 테이블(Berlin Table, 1923)이며, 건축작품은 슈뢰더 하우스(Schröder House, 1924)이다.

## 2. 더 스테일의 분해구성(de-composition)<sup>1)</sup>의 특성

1) 분해구성( planar de-composition )의 범위:

일반적으로 '구성'과 '구축'의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2차원적 표현특성을 지닌 것을 '분해구성', 3차원적 표현특성을 지닌 것을 '분해구축'이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20세기 초 화가, 조각가들의 작품제목으로 'composition'과 'construction'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구별하여 사용하기가 애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해구성' 또한 '분해구축'의 의미를 내포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한다.

\* 두원공과대학, 건축디자인과 조교수

분해구성은 1910년경 추상을 통한 새로운 미술을 실험한 큐비즘(cubism), 절대주의(supermacist), 신조형주의(neo-plasticism)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화법이다. 큐비즘은 자연 대상물에 대한 투시도적 화면의 틀을 파기하고 기하학적으로 분절된 요소들을 다투사적 방식으로, 러시아 절대주의는 구성으로부터 주제를 배제시켜 순수 비대상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신조형주의는 자연의 다양한 형태변화를 객관적인 규칙성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형태의 분해구성적 화법을 발전시켰다.

20세기 초반 추상미술 전개과정에서 생성된 이러한 분해구성화법들은 리트벨트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전개되었던 더 스테일 화가들의 분해구성적 화법들은 그에게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리트벨트의 분해구성 작품분석을 위한 토대로 더 스테일 화가들이 사용한 분해구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반 두즈버그(Theo van Doesburg)는 반 고흐(Van Gogh)의 <씨뿌리는 사람, The Sower, 1889>작품을 모티브로 사용하여 형태를 평면화시키고 분절시켜 <전원풍경, Great Pastoral Scene, 1922>작품을 완성하였다. 반 데렉(Van de Leck) 또한 <광산풍경 연구, Study of a Mine in Spain, 1914>을 통해 사실적 풍경을 묘사하고 이를 기초로 색면으로 형태를 평면화시키고, 분해시키며, 추상화시켜 <그림의 4가지연구, Four Studies for the painting, 1916>로 표현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분해적 화법은 자연대상을 극도로 축약된 직선, 기하학적 형태, 색선, 색면 등 단편화된 요소로 표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자연의 해체적인 탐구를 통해서 절대적인 불변성, 즉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불변의 원리를 찾고자하였던 것이다.

2.2 잠재적 공간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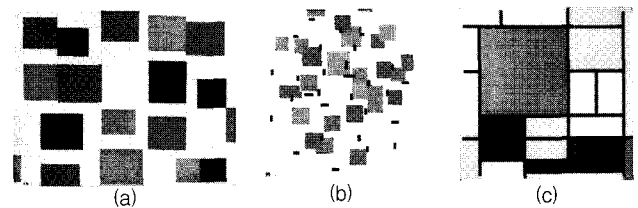


그림 1. (a) composition with color planes, 1917, (b) composition with colors A, 1917, (c) composition with red, yellow blue and black, 1921

더 스테일 화가들은 <그림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단계별로 형태를 분절하고, 기하학적인 선과 색면들로 다시 분해하고, 대상의 명확한 구조를 바탕으로 자연에서 추출된 선과 색면들의 긴밀한 관계를 재조직하는 방식으로 잠재적 공간관계를 탐구하였다. 초기 검은 선 구성과 같이 물체를 소거하는 방식에서 발전하여 선과 색면들의 조직관계 속에서 무한공간을 표현한 것이다. 즉 수직·수평선의 관계 또는 색면들의 관계조직을 표현하는데 순차적 작업질서를 조절함으로써 색면들이 캔버스를 떠나 공간 속에 중첩되어 잠재적 공간을 만들어 가는 방식을 추구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가구나 건축의 공간조직방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공간관계 탐구과정은 단계별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색면과 선이 서로서로 독립적인 위치에 정확히 놓이는 방식으로, 두 번째 단계는 색면과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 번째 단계는 선과 색채를 독립적 요소로 보고 이 둘의 결합과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2.3 소점의 제거 : 비중력(anti-gravity)

바로니의 저서 <The Furniture of Thomas Gerrit Rietveld>에서 의미있는 도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도식은 리트벨트가 르네상스, 큐비즘, 더 스테일의 중력개념

표 1. De-Composition Process of Early De Stijl

1908-1922 de-composition process	
몽드리앙	<p>The Red Tree, 1908    The Grey Tree, 1912    Blossoming Apple Tree, 1912    Composition Trees, 1912</p>
반 두즈버그	<p>Gogh, The Sower, 1889    Sketches and studies for his "Great Pastoral Scene", 1921    Color draft for the "Great Pastoral Scene", 1921-22    Great Pastoral Scene, 1921-22</p>
반 데렉	<p>Study of a Mine in Spain, 1914    Four Studies for the painting Composition 1916    Four Studies for the painting Composition 1916    Four Studies for the painting Composition 1916    Four Studies for the painting Composition 1916</p>

2.1 자연대상의 분해적 표현

더 스테일 화가 몽드리앙(Mondrian), 반 두즈버그(van Doesburg), 반 데렉(van de Leck)은 자연 대상물의 표현에 있어서 형태의 분절로부터 시작하였다.

<표1>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분해과정을 분석해보면, 몽드리앙(Piet Mondrian)은 <붉은 나무, The red tree, 1908>그림에서 점차 나무의 형태를 소거하고 단편화시켜 <나무구성, Composition tree, 1912>으로 발전시켰으며,

을 표현한 다이어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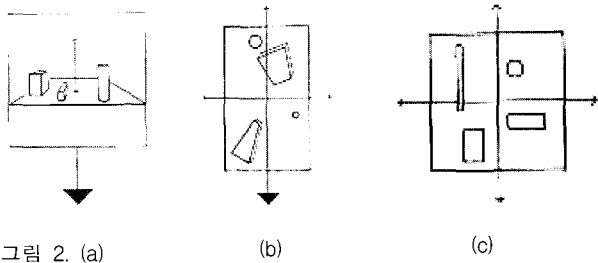


그림 2. (a) (b) (c)

이 도식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더 스테일의 분해구성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화살표시 방향과 면과 물체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자.

<그림 2-a>는 수평면에 면한 상향 화살표와 공간들 하면에 면한 하향 화살표로 표시되고 하향 화살표는 가장 강력한 힘을 표시하듯 진하게 그려졌다. 공간들 속에 존재하는 물체는 자연원리의 강력한 지배를 받으며 하나의 초점을 가진다. <그림 2-b>는 상하, 좌우 화살표로 표시하고 하향 화살표에 더 강한 힘을 표현하고, 중력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공간들을 그려놓았다. 좌우 화살표는 사물과 사물사이의 힘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의 장력을, 상하 화살표는 자연의 힘에 지배받는 중력을 표현한 것이다. 이 두개의 힘 사이에는 위계가 존재하며, 여전히 하향방향의 힘은 강력한 소실점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두 힘의 관계로 물체를 더 이상 면에 구속시키지 않고 공간에 자유로이 떠 있게 되었으며 다소점이 생성되었다. <그림 2-c>는 상하, 좌우 화살표가 동등한 위계로 표시되었으며, 공간들은 힘의 평형을 보여주듯 정사각형으로 그려졌다. 물체들은 어떠한 우위의 힘에 지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물체와 화면과의 초점은 모두 소멸된다. 단지 물체들 간의 평형상태만이 남게 된다.

이렇듯 더 스테일 화가들은 분해시킨 구성요소들을 무중력 상태의 균형관계로 놓는 새로운 조직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또한 초점이 소거되고 모든 사물은 평면적 관계로 표현된다.

### 2.4 닫힌 면의 해체 : 개방(opened-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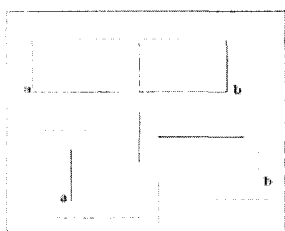


그림 3. T. van Doesburg, plan of closed-in geometrical forms and relative neoplastic de-composition

바로니는 앞의 책에서 반 두즈버그의 또 다른 도식으로 더 스테일의 분해구성의 또 다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윗 그림은 단지 4개의 폐선으로 닫힌 사각형을 그렸으며, 아랫 그림에서 이들 4개의 폐선들은 각각 상하·

근대 조형예술에 있어서 분해 구성 조직방식에 관한 연구 좌우로 분해되고, 면이 해체되며, 모서리가 열리고 비대칭으로 배치되었다. 이 두 그림은 '형태를 가진 것'과 '형태가 없는 것', '닫힌 면이 있는 것'과 '닫힌 면이 없이 모두 개방된 것'의 대립적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해구성은 추상을 통한 새로운 회화표현에서 파생된 형태표현방식이다. 그들은 자연의 형태를 극단적으로 단편화시키고, 초점을 제거하여 평면화시키며, 개방성을 강조하는 개념을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분해적 표현방식은 전 유럽을 휩쓸었으며 기존 회화적 표현방식 뿐만 아니라 가구·건축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 3. 작품 분석

본 장에서는 분석대상 작품 <그림 4>의 각 부재들간의 집합 조직관계 분석을 통하여 분해구성작품의 조직체계를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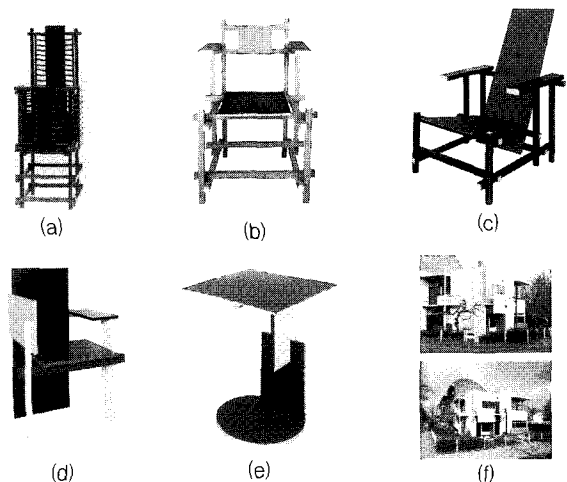


그림 4. 리트베크트 작품소개 (a) 쉘링 하이체어1 (b) 쉘링 하이체어2 (c) 적청의자 (d) 베를린체어 (e) 엔드테이블 (f) 쉬뢰더하우스

### 3.1 집합 조직관계

#### 3.1.1 점 집합 : A

선+선 A-a구성은 몽드리앙의 그림에서 선을 긋는 행위의 순서에 따라 서로 상이한 잠재적 공간을 표현한 것과 관련된다. X축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Z축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깊이감이 달라지며 그것은 상당한 시각적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 리트베크트는 <셸링하이체어 1>에서는 Z축을 먼저 세워놓고 X축을 그 주변에 둘러싸

는 방식으로, 반면에 <셀링하이웨이2>에서는 X축을 먼저 놓고 Z축을 세워 둘러싸는 방식으로 분해된 요소들을 놓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실험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쉬뢰더하우스>의 창틀에서도 적용되었다.

선+선+선 A-b구성은 4각단면의 3각재를 X, Y, Z축으로 교차 통과 접합하는 독창적인 접합방식을 시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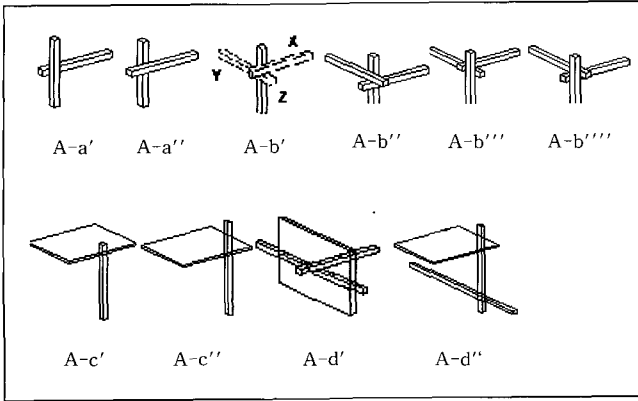


그림 5. 점 접합 유형

발전된다. 위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처음에는 X축 부재를 중심으로 Y축을 직각으로 교차시키고 Z축을 안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교차 접합하였으며, 점차 Z축을 중심으로 X, Y부재를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접합하면서 확장적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선+면 A-c구성은 선과 면이 직각체계로 통과하거나 만나는 접점에 생기게 된다. <베를린 테이블>에서 수평면과 Z축 수직선이 만나는 A-c'방식이 실험되며, <쉬뢰더하우스>에서는 남동면 발코니 캔틸레버 수평면과 Z축 형강이 스쳐 만나는 A-c''방식이 사용된다.

선+선+면 A-d구성은 <베를린 테이블>에서 사용된 X축 선 부재가 수직면을 뚫고 지나가는 A-d'방식과 <쉬뢰더하우스>의 남서면 캔틸레버 처마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A-d''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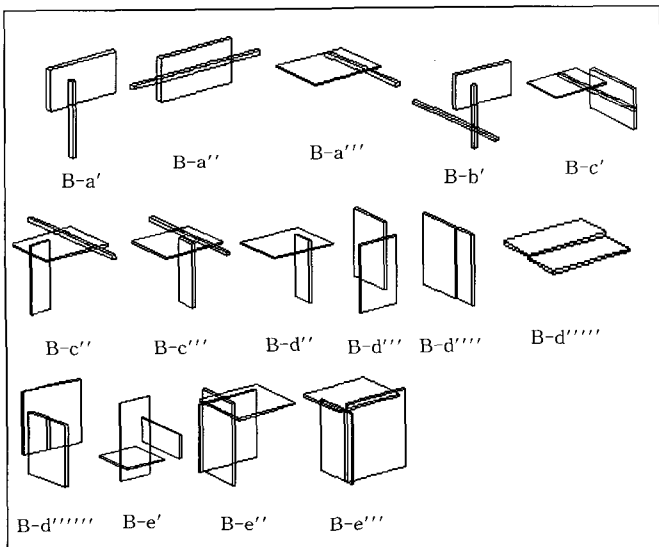


그림 6. 선 접합 유형

3.1.2 선 접합 : B

선+면 B-a구성은 수직면에 X축 선을 접합통과시키는 방식(리프트 다이닝 চে어)이나 Z축 선을 일부분 접합시키는 방식(베를린 চে어), 수평면에 X축선을 통과 접합시키는 방식(베를린 চে어)으로 조형실험되었다.

선+선+면 B-b는 수직면에 Z축선을 평행접합시키고 X축 선을 간격을 두고 아래로 교차접합하는 방식(베를린 চে어)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선+면접합방식에 선을 추가하여 공간깊이를 더해준다.

선+면+면 B-c구성은 수평면과 수직면을 직각으로 점접합시키고 선을 통과시켜 접합시킨 방식(베를린 চে어)과 면들을 직교 선접합 시킨 후 그 접합선과 직각방향으로 선을 접합시키는 방식(베를린 চে어), 선을 그 접합선과 평행하게 공간을 두고 접합시키는 방식(엔드테이블)이 있다.

면+면 B-d구성은 수직면과 수평면의 직교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었다. 이는 크게 두 면을 직각체계로 붙이는 방법과 평행하게 붙이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직각체계로 접합하는 방식에는 다시 대칭적 위치에 직각으로 붙이는 방식과 비대칭적 위치에 붙이는 방식, 수평면을 수직면에 끼워넣는 접합방식과 수직면에 수평면을 끼워 넣는 방식(쉬뢰더하우스), 수직면에 수직면을 끼워 넣는 방식(엔드 테이블)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면+면+면 B-e구성은 X, Y, Z축의 세 면의 접합관계에 따라 다양하다. 세 면이 각각 직각체계로 만날 경우(쏘잉 테이블), 두 면은 평행접합되고 나머지 한 면이 두 평행면과 직각으로 만나는 경우(쉬뢰더하우스)에 생성된다.

3.1.3 면 접합 :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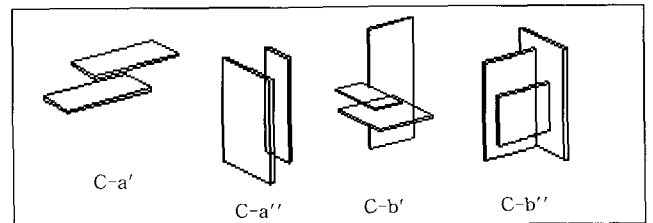


그림 7. 면 접합 유형

면+면 C-a 구성은 수직면 또는 수평면이 각각 평행하게 놓여질 때 만들어진다. 평행하게 접합되는 두 면은 직접 접합에 의한 방식과 공간을 사이에 두고 접합하는 잠재적 대면 방식이 있다.

면+면+면 C-b 구성은 두 개의 평행인 수평면 또는 수직면에 한 개의 다른 직각면으로 만들어진다. 이 평행한 두 면은 서로 부분적으로 겹칠 수도 있고 직접 접할 수도 있다.

3.1.4 소결

(1) 전통적인 가구의 모서리를 맞붙이는 제한된 선, 면 접합에서 구성요소들의 모서리 교차·통과·직교·평

행·대면방식의 공간확장적 접합방식을 탐구하였다.

(2) 접합방식 실험은 점 접합, 선 접합, 면 접합의 순차적 과정으로 발전되었다.

(3) 점 접합은 <그림5>와 같이 선+선, 선+선+선, 선+면, 선+선+면, 면+면으로, 선 접합은 <그림6>와 같이 선+면, 선+선+면, 선+면+면, 면+면, 면+면+면으로, 면 접합은 <그림7>과 같이 면+면, 면+면+면의 상호 직교·평행구축방식에 의해 생성되었다.

4. 공간관계 조직분석

4.1 회화적 공간 관계분석

평면 구성 방식은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작업하는 방식에 비견된다. 평평한 배경화면이 무의식속에 공간으로 인지되고 예술가적 감각에 의해 분해된 요소들이 배치되며 각각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작동하여 요소별 공간관계 조직을 만든다.

리트벨트는 그의 천재적 조형감각으로 분해된 요소들을 2차원과 3차원 사이를 오가며 공간관계를 생성시켰다.

표2. 회화적 공간관계 분석

	교차통과	편향교차	잠재교차	평행
선분 조각				
색면	중첩	결침	인접	관입

그 요소별 관계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선분 조각들의 관계인데, 이것들은 서로 교차통과, 편향교차, 잠재교차, 평행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로 색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2-3개의 면들이 서로 중첩·결침·인접·관입의 관계로 조직된다.

이러한 회화적 공간관계 조직방식은 작업의 순차적 인지를 작동시켜 3차원으로 지각하게 하며 3차원 실체공간보다 더 강력한 공간감을 유도한다.

4.2 3차원 공간관계 분석

3차원적 실체는 볼륨을 가지며, 볼륨은 보이지 않는 '외피막'으로 존재한다. 닫힌 육방체 볼륨은 수평면과 수직면의 조직으로 즉 요소로 분해되며, 이 분해된 요소는 새로운 공간을 생성하는 결정적 촉매역할을 하여 분해놀이로 작동한다. 요소는 스스로 분해되어 상자곽 모양과는 상이한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그 수평·수직면의 배치관계를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

표3. 3차원 공간관계 분석

	정육면체	직육면체	단일볼륨 해체
볼륨			
배치	직각배치	대면배치	돌림배치
공간조직	공간개·폐	공간대각	아랫면

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수평으로 누운 막이새들이 위·아래에 놓여져 서로 직각관계로 엮히는 방식이다. 엔드테이블은 두 면이 직접적 직각관계로 교차되며, 베를린첸어에서는 수직면과 평면이 공간을 사이에 두고 잠재적 직각관계를 가진다. 둘째는 두 면이 평행하게 서로 대면관계로 놓이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계는 <베를린첸어>, <소잉캐비닛>, <쉬뢰더하우스>에서 빈번히 사용되었다. 세 번째는 돌림배치 방식이다. 이제 90° 배치관계에서 270° 배치관계가 시도된다.

이와 더불어 공간조직 관계를 분석해 보면 다각적 관계를 탐구한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로 수직면과 수평면은 단음·열림의 교대운동을 통해 닫힌 볼륨에서 열린 볼륨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방식은 <악보보관용 캐비닛>에서 사용된 방식이 그대로 <쉬뢰더하우스>에 재사용된 것이 목격된다. 이러한 독립 면들은 내·외 공간소통을 가능케 하여 닫힌 상자꼴을 분해한다. 둘째로 앞에서 탐구한 것보다 더 발전된 조형 조직방식인 공간대각 관계이다. <베를린 첸어>의 좌·우 팔걸이 면들은 수직면과 수평면이 사이공간을 두고 직각배치되고 중심 요소가 비대칭됨으로서 공간대각 관계가 생성된

다. 셋째로 아랫면 공간 조직이다. 파리 전시회에서 전시할 주택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리트벨트는 분명 아랫면에 대한 조형공간을 경험한 것이다.<sup>2)</sup> 그는 <쉬뢰더 하우스>에서 처마면과 발코니면의 돌출을 통해 이러한 아랫면 공간을 실현시키고 있다. 그는 <쉬뢰더 하우스>를 통해 아랫면 공간효과를 확인하려했던 것이다. 그는 내민 처마면이나 발코니면 즉 내민보라 부르는 바닥판을 중요한 공간조직 요소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23년 레온스 로젠버그(Leon Rosenberg)의 '현대의 성과'(L'effort Moderne)라는 화랑에서 개최된 건축작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에서도 발견된다. 파리전시회에서 리트벨트와 반 두즈버그와 에스테렌이 함께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주택(L'Hôtel particulier), 개인주택(Maison Particulier), 예술가 주택(Maison d'Artiste)에서 '각 요소의 분해실험단계'를 거쳐 '각 분해요소의 새로운 구축실험'으로 발전하는 순차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 5. 결론

리트벨트의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분해구성 조직방식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이 시기의 분해구성작품들은 동시대 더 스테일 화가들과의 교류과정에서 만들어진 성과이다. 그 작업은 다음과 같은 조직방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 1917년~1924년 리트벨트는 가구제작에서 모서리를 맞붙이는 전통적 접합법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즉, 4각단면의 각재 3개를 서로 교차·통과시키는 일련의 공간확장적 접합방식을 발견한 것이다. 그의 조형기법은 다양한 분해구성 조직방식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접합체계는 선+선, 선+선+선, 선+면, 선+선+면, 선+면+면, 면+면, 면+면+면의 상호 직교·교차·평행을 통해 점접합, 선접합, 면접합을 이루며 다양한 구축적 관계 조직을 만들었다.

둘째, 더 스테일 화가들의 분해적 작업 방식, 즉 2차원 화면에 분해된 조각선분과 색면들의 배치를 통해 공간감과 운동감을 시각화하는 작업방식을 3차원 가구 및 건축작품에 확장 적용시켰다. 선분조각들의 교차통과, 편향교차, 잠재교차, 평행 관계맺기, 선분의 조각적 방향성 만들기, 색면들의 중첩, 걸침, 인접, 관입 관계 맺기로 실현시켰다.

셋째, 분해구성 작품들의 볼륨은 단일 정육면체, 단일 직육면체, 다중 육면체의 외피막으로 만들어졌다. 단면 육면체를 열린 육면체로 조직하기 위해 분해된 요소들을 직접·간접으로 직각배치, 대면배치, 돌림배치, 교대배치하여 각 요소들이 스스로 작동하고 상자곽 모양의 공간을 분해한다. 이러한 요소들의 배치관계를 통해 새로운

공간이 조직되는데, 첫 번째는 공간의 닫음과 열림을 통해 닫힌 공간이 열리게 되며, 두 번째는 수평막이새과 수직막이새들의 관계를 조직하여 대각선으로 열린 공간을 만들어내며, 세 번째는 돌출 수평막이면을 통해 아랫면 공간을 생성하여 반 중력공간을 경험케 하는 새로운 조형공간을 만들어내었다.

1917년~1924년에 걸쳐 실험된 리트벨트의 작품들은 반 두즈버그의 'V선언'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그는 "해체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렸다. 새로운 시대, 구축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분해구성의 탐구를 통해 새로운 건축 구축적 구성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근대건축의 기초를 열어주는 토대가 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열린 공간 구축적 건축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 참고문헌

1. Peter Vöge, Paul Overy, The complete Rietveld furniture, 010 Publishers. Rotterdam, 1993
2. Marijke Küper, Ida van Zijl, Gerrit Th. Rietveld, Centraal Museum, Utrecht, 1992
3. Peter Drijver, Johannes Niemeijer, How to construct Rietveld furniture, THOTH Publishers, 2001
4. Ida van Zijl, Rietveld in Utrecht, Centraal Museum, The Netherlands, 2001
5. Hedwig Saam, Gerrit Rietveld En De Zonnehof, Amersfoort, Rotterdam, 2001
6. Marijke Küper, Ida van Zijl, Rietveld Schröder Archive, Centraal Museum, Utrecht, 1988
7. Carsten-Peter Warncke, The Ideal as Art De Stijl 1917-1931, Benedikt Taschen, 1991
8. Paul Overy, De Stijl, Thames and Hudson, 1991
9. Paul Overy ed., The Rietveld Schröder House, the MIT Press, 1988
10. Theo van Doesburg, Theo van Doesburg oeuvre catalogue, Centraal Museum, Utrecht, 2000
11. Susanne Deicher, Piet Mondrian, structure in space, Benedikt Taschen, 1995
12. 김현철, 몽드리아의 "색구성A,B", 1917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2호, 2001.2

2) 오귀스트 슈와지(August Choisy)의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axonometric 표현법에 자극을 받아, 반 두즈버그는 파리전시회 출품작인 예술가 주택의 모형사진을 이와 동일한 시점에서 촬영하여 아랫면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